

# “보이지 않는 물괴와 액션신 힘들었어요”



## ‘물괴’서 그래픽과 연기 대결한 김명민 “국내 첫 시도 장르 내게 큰 도전이었죠”

“영화를 찍으면서 시름시름 앓았어요.”

이달 12일 개봉하는 영화 ‘물괴’로 돌아온 김명민(46)은 고됐던 촬영 현장이다 시 때로는 웃고 고개를 저었다.

4일 서울 종로구 팔판동에서 만난 그는 “사극에 여러 번 출연했지만, ‘물괴’ 만큼 액션신이 많았던 적은 처음”이라며 “보이지 않는 괴수와 연기해야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다”고 털어놨다.

김명민은 이 작품에서 임금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옛 내금위장 윤겸 역을 맡았다. 물괴가 나타나 백성을 괴롭히자, 왕의 부름을 받고 충직한 부하 성한(김인권), 외동딸 명(이혜리), 무관 허 선전관(최우식)과 함께 물괴 수색에 나선다. 물괴는 컴퓨터그래픽으로 구현됐다.

“말로는 어마무시한 놈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연기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괴물과 일대일로 싸울 때는 저 혼자 블루스크린 앞에서 날아다녔어요. 어느 정도까지 리액션해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었습니다.”

최근 시사회에서 물괴 모습을 확인한 김명민은 “물괴가 추악하고 혐오감 있게 그려져 다행”이라며 “저보다 연기를 잘한 것 같다. 심지어 연민까지 느껴지더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명민은 영화 속에서 정통 검술은 물론 삼지창, 낫, 곡괭이 등 농기구를 이용한 다양한 액션을 선보인다.

그는 “너무 무거워서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다”면서 “나이가 들고 연륜이 생기다 보니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멋있게 보이는지 안다. 반은 무술이고, 반은 허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제 몸에는 무술인 피가 흐르는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김명민은 그동안 ‘조선명탐정’ (2011) 시리즈, ‘연가시’ (2012),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2015), TV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 (2018), ‘육룡이 나르샤’ (2015~2016) 등의 작품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였다.

그러나 사극 크리쳐 영화는 국내 처음 시도되는 장르인 만큼, 그에게도 큰 도전이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전이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모두에게 도전이었죠. 이런 시도가 계속 나오고 성공해야 한국형 크리쳐물을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도 생길 것 같아요. 한국영화에도 다양한 장르가 자리 잡을 수 있고요.”

극중 김명민의 모습에서 ‘조선명탐정’ 김민과 ‘불멸의 이순신’ 속 이순신 모습이 살짝 보인다고 하자, 그는 “같은 배우가 연기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콧나게 답했다. 그러면서 “감독님과 상의해서 명탐정을 떠올리게 하는 대사들은 바꾸거나 톤을 조절해서 차별화를 꾀했다”고 강조했다.

김명민은 차기작으로 ‘장사리 9.15’ (곽경택·김태훈 감독)에 출연한다. 10월 촬영에 들어가는 이 작품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양동작전으로 진행된 장사리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다. 얼마 전 할리우드 여배우 메간 폭스가 실존 중군기자인 마거릿 히긴스 역에 캐스팅돼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 망가진 영웅으로 컴백한 유승호 SBS 월화극 ‘복수가 돌아왔다’로 복귀

배우 유승호가 연말 방송할 SBS TV 월화극 ‘복수가 돌아왔다’의 주연을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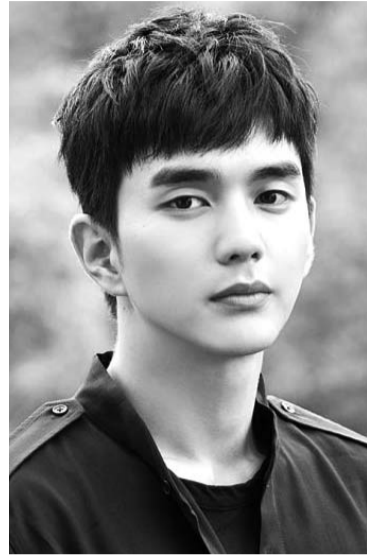
SBS는 “유승호가 ‘여유각시별’ 후속으로 방송될 월화극 ‘복수가 돌아왔다’ 주인공 강복수를 연기한다”고 최근 밝혔다.

‘복수가 돌아왔다’는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려 퇴학당하는 바람에 인생이 꼬인 강복수가 어른이 돼 복수하겠다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만, 복수는커녕 또다시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는 학원 로맨스극이다.

강복수는 자신을 퇴학당하게 한 첫사랑 손수정과 학교 이사장 아들 오세호에게 복수하기 위해 설송고등학교에 다시 들어가지만 변한 학교 환경에 과거 학교 영웅의 지위를 되찾지 못하고 좌충우돌한다.

SBS 측은 “유승호의 착한 심성과 호감 가는 외모, 낙천적인 성격이 바로 주인공 강복수와 딱 닮았다”며 “유승호가 이 망가진 작은 영웅의 매력을 맘껏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인 김윤영 작가와 ‘기쁜 날’의 공동연출자인 함준호 PD가 만든다. 12월께 방송 예정. /연합뉴스



## ‘폼나게 먹자’ 화려한 라인업으로 스타트~ 박세리·아이유·하하 등 출연...7일 첫 방

SBS TV는 오는 7일 첫 방송을 앞둔 금요 예능 ‘폼나게 먹자’에 다양한 게스트가 출연한다고 3일 밝혔다.

‘폼나게 먹자’는 세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토종 식재료를 찾아 떠나는 내용의 예능이다. MC는 개그맨 이경규와 배우 김성중, 채림, 래퍼 로꼬가 맡아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첫회 게스트로는 가수 아이유가 출격하며 전 프로골퍼 박세리, 가수 하하와 홍진영, 토니안도 함께한다.

여기에 ‘대세 걸그룹’ 트와이스 다현·정려와 AOA 설현이 출연해 차별화한 입맛을 자랑할 예정이다.

실력과 세프들도 힘을 보탠다. ‘한식 대가’ 심영순부터 최현석, 이원일, 오세득 등이 이 땅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식재료를 이용해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선보인다.

7일 밤 11시 20분 방송.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밥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미야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유한국당 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시간(재)	0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자유한국당 40 SBS 뉴스
[11]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당신의 하우스헬퍼(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신 노년 시대 4부작(재)	00 속보이든TV 인사이드(재)	00 1318 사랑의 열매 캠프	55 닥터 365
[2]	40 동물의 건축술 플러스(재)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TV속의 TV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뽀뽀 뽀뽀 유아 놀자 스페셜 30 에어로버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00 판다랑 30 드림 주니어 스페셜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꼬마탐정 토비와 테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0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미니다Q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숨터	00 오늘의 탐정	00 시간	00 친애하는 판사님께
[11]	00 KBS 뉴스라인 40 역사저널 그날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영상앨범 산(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언어 똑배기 비빔밥〉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오상진의 베트남 피싱로드 3부 무이네 사람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초대석 13:00 지식채널e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우리 가족 거리 줄이기-부모성적표(재) 14:30 코코몽3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15:45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랄랄라 뿌우(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꼬마버스 타요 08:00 당동당 유치원1~2 08:30 미니특공대 X 08:45 랄랄라 뿌우 09:00 엄마 까투리 09:30 원더볼즈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7:15 엄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19:00 정글에서 살아남자-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메디컬 다큐 - 7요일 20:40 세계테마기행 〈섬섬옥수 필리핀 3부 흐르는 강물처럼〉 21:30 한국기행 〈백반기행 3부 수상한 밥집〉 21:50 EBS 다큐프라임 〈위대한 로마 3부〉 22:45 극한직업 23:55 EBS 초대석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5일 (음 7월 26일 庚子)

<p><b>子</b> 36년생 필수 사항을 제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 48년생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국이다. 60년생 그나마 섭섭함을 면할 정도는 되겠다. 72년생 길고 짧은 것은 비교해 봐야 알 것이다. 84년생 요령을 보인다면 효과 과 커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3, 92</p>	<p><b>午</b> 42년생 현하에 충실하다보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54년생 실리를 추구하라. 66년생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지 말라. 78년생 어려움을 잠시일 뿐이니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하라. 90년생 즉흥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속을 태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23</p>
<p><b>丑</b> 37년생 기존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가 보인다. 49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61년생 방심은 금물임을 알라. 73년생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85년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몹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3, 99</p>	<p><b>未</b> 43년생 서두르지 않는다면 해 저무는 고객의 처지가 된다. 55년생 이루는 것 못지않게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 67년생 사려 깊게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79년생 임기응변에 능해야 한다. 91년생 현상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7, 52</p>
<p><b>寅</b> 38년생 오르막길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내리막길에 이르는 법이다. 50년생 세밀하게 살펴보면 드러날 것이다. 62년생 결정적인 순간이니 주목하고 있어야겠다. 74년생 급하게 추진하면 반드시 무리가 따른다. 86년생 자연 되기는 하나 목적은 달성 되겠다. 행운의 숫자 : 49, 26</p>	<p><b>申</b> 44년생 착수만 한다면 일사천리로 추진된다. 56년생 바탕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철호의 찬스로다. 68년생 사필귀정과 인과응보의 근본적 철칙에서 벗어남이 없겠다. 80년생 시기를 늦추고 자신을 낮추면 해결 된다. 92년생 연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31, 66</p>
<p><b>卯</b> 39년생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입으로 인한 화근을 짓지 말라. 51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좌우 될 것이다. 63년생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생산적이다. 75년생 전방위적인 분석을 요한다. 87년생 눈 똑똑히 뜨고두고 속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9, 70</p>	<p><b>酉</b> 45년생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 57년생 턱이 쌓인다면 궁극적으로 길성을 부르리라. 69년생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81년생 생소하기는 하나 재미는 있을 것이다. 93년생 낙담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77, 04</p>
<p><b>辰</b> 40년생 단순하게 판단한다면 오류를 부를 뿐이다. 52년생 전반적이며 혁신적으로 개편되는 마당이라. 64년생 생 두고 참고만 하자. 76년생 지금은 기탄없이 포부를 펼쳐야 할 시기이다. 88년생 승산이 있는 게임에 비유할 만하니 명쾌하게 대처하자. 행운의 숫자 : 91, 71</p>	<p><b>戌</b> 34년생 상호간에 공동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이익이다. 46년생 알찬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하라. 58년생 생 부주의한다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70년생 자신의 기대에는 못 미치겠다. 82년생 응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도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94, 64</p>
<p><b>巳</b> 41년생 빈틈없이 시도한다면 머지않아 결과를 얻게 된다. 53년생 연쇄적인 걸사로 이어진다. 65년생 주변으로부터 크게 주목 받을 수 있는 행운이 따른다. 77년생 합리적이어야만 알찬 결실을 맺는다. 89년생 숨이 가쁘도록 뛰어나야 할 바쁜 날이다. 행운의 숫자 : 38, 85</p>	<p><b>亥</b> 35년생 고정 관념을 버린다면 새로운 면모를 읽을 수 있다. 47년생 매달린 잘 풀린다면 순탄해진다. 59년생 포장을 잘 한다면 가치를 높일 것이다. 71년생 겉거리는 차치하고 핵심 위주로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 83년생 분명히 이로운 것과 관련된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4, 27</p>